

정부, 전액 지원 하겠다던 광주 국립과학관 건립비 443억원 광주시에 떠넘겨

당초 방침 바뀌...매년 운영비 20억원 분담도 요구

정부가 전액 국가재정으로 건립·운영키로 했던 국가 산하기관인 광주 국립과학관의 설립 방침을 바꿔 광주시에 운영비 등의 분담금을 요구해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립과학관 건립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등을 덜기 위해 광주시에 건립비와 운영비를 각각 50% 분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에 제공기로 한 부지매입비 208억원을 포함해 당초 예상치 못한 국립과학관 건립 비용 887억원의 절반인 443억5천만원 등 모두 651억원을 부담해야할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당초 방침과 달리 2011년 7월 개관 예정인 국립과학관의 운영·관리비 36억원의 절반인 18억원을 광주시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과학관의 설립을 추

진 중인 대구시와 강원도에도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관리·운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과학관의 건립을 요구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국가기관 유치를 막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 등의 분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재정형편상 매년 20억원에 가까운 과학관운영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국립과학관의 건

립비와 운영비를 떠넘길 경우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며 “과학관이 국가산하 기관인 만큼 전액 정부지원으로 건립·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도 정부는 과학관 운영부담 등을 덜기 위해 독립기관 위탁, 민간 기구 위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운영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광주시가 요청한 국립과학관 건립비 70억원은 2009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내년 10월까지 건립공사가 본격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첨단과학산업단지내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근에 들어서며 오는 2011년 완공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기초과학관·어린이체험관·지역산업관 등이 배치돼 지역 과학인재 육성과 과학문화 저변확대의 중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심 속 국화 전시회 27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2008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국화 전시회'를 보러온 어린이들이 그윽한 국화 향기를 맡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권·문화도시 광주 홍보해 주세요 市, 외국인 유학생 120명 초청 시티투어

광주시는 지역 대학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120명을 초청, 시티투어 행사를 갖는다. 시는 “28일과 다음달 5일, 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외국인 유학생 광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시가 (사)광주국제교류센터에 위탁해 12개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중국, 베트남, 일본, 서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120명이 참가한다. 투어 코스는 시청 홍보관과 산업전시관, 가야동자차, 광주디자인센터, 국립5·18민주묘지, 외제미술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이며 전통문화연구원 ‘일수의 공연’과 비엔날레도 관람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이자 첨단산업과 문화수도로서 광주의 발전상을 알려 본국으로 돌아가서 광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민간외교 차원에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추진 성과를 분석해 내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여대생 캠프’ 참가자 모집

광주시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송화)는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여대생 캠프’ 참가자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전남대 여성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캠프는 다음달 8일부터 이틀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달 3일까지 광주 여성발전센터에 전화(062-383-5758)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 중단

감독 기관 변경후 예산 집행 안돼 운영 차질

지역민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의 일부 업무가 중단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센터측에 따르면 최근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감독 기관이 변경된 후 업무 절차와 예산 집행 문제 등으로 지난 22일부터 ‘학교 미디어 교육’ 등 지속·신규 사업 운영이 중단됐다.

문제의 발단은 외부 감사의 계약문제. 지금까지 센터의 사업을 담당하는 외부 감사의 경우 센터장이 계약을 해왔으나 방통위 체제로 바뀐 후 방통위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현재 예산 집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센터 관계자는 “당초 방통위가 22일까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해 프로그램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중단 안내문을 띄웠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측은 센터 측에 11월에는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예산이 제 때 집행될 지는 미지수다. 센터는 이번 사태와 관련, 27일 센터운영위원회를 열고 방통위에 예산 집행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해둔 상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 관광사진 공모전 내달 20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지역내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2008 광주관광사진 전국공모전’을 개최한다. 작품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로, 응모자격은 내·외국인 제한이 없다. 광주를 소재로 촬영한 작품으로 국내·외 미발표작이어야 한다. 시는 응모작 가운데 모두 61점의 입상작을 선정, 12월 중 시상식과 함께 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작품은 향후 각종 관광홍보물, 관광설명회, 홍보관 운영 등 광주관광마케팅 활동에 자료로 활용되며, 입선 작품은 도록으로 제작해 시의 사료로 보존하게 된다. 문의 시 관광진흥과(062-613-3623),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062-228-4774). /정후식기자 who@

“수돗물 안심하고 마셔도 되겠네요”

광주시 정수장 견학 올 들어 9천여명 다녀가

광주시가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금급증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수장 견학 행사가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남구 덕남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견학 행사에 올들어 가파른 위 방문객과 각급 학교 등에서 9천여명이 다녀갔다. 견학은 착수정과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등 수돗물 생산공정을 관람하고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는 과정으로 50분에 걸쳐 이뤄진다. 견학 신청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ater.gjcity.net)나 덕남정수사업소(062-613-6172)로 문의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주)국제보청기 (062) 227-9940 총장점 (주)국제보청기 (062) 227-9970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침단 3,000명

OPEN 동

11월 14(금)

11월 14(금) 장윤정

15회 조양조, 17회 송대관, 20회 최진희, 25회 박현민, 27회 김수의, 4회 5회 설운도

광주침단 · 록스존영 나이트